

# 동서 교류에 있어서 중국 경전의 번역 및 그 영향\*

— 초기를 중심으로

신원철\*\*

- 
1. 들어가며
  2. 중국 경전이 번역된 상황 - 초기를 중심으로
  3. 경전을 번역한 대표적 인물
  4. 중국 경전이 번역되어 전해진 이후 유럽에서의 영향
  5. 나가며
- 

## ■ 국문요약

본 논문은 중국의 경전이 서쪽으로 전해진 상황을 대표적인 인물을 위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그 이유에 대한 단초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장에서는 최초 후안 코보의 《명심보감》 번역에서 제임스 레그의 사서오경 번역까지의 번역 상황 중에서 사서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3장에서는 이러한 인물 중 제임스 레그를 제외한 3명으로 인토르체타 프로스페로, 프랑수와 노엘, 앙투안 고빌 등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였다. 4장에서는 이와 같은 중국 경전이 번역된 후 유럽에서의 영향을 황태연(2011)의 기술을 통해 살펴보고 그 원인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유럽인에 의한 중국 경전의 번역과 그 영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속에서 나타난 다양한 기술과 내용, 그리고 그 분기 등은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검토하고 개척해야 할

---

\* 본 논문은 2020년 11월 21일 한국중어중문학회 추계연합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수정을 거친 것이다.

\*\* 안양대학교 신학연구소 HK+사업단 HK조교수 / E-mail: chimsky@paran.com

부분이 많음을 나타낸다.

**주제어:** 동서 교류, 중국 경전, 번역, 인토르체타 프로스페로, 프랑수와 노엘, 앙투안 고벨, 제임스 레그

## 1. 들어가며

본 논문은 중국의 경전이 서쪽으로 전해진 상황을 대표적인 인물을 위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그 이유에 대한 단초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서 교류는 인류 탄생 후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고금을 통틀어 계속되는 현상이다. 여기에서는 그 중 유가(儒家) 경전이라고 하는 특정한 문화 자산에 대해 서양이라고 하는 다른 세계에 어떻게 소개되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권에서 십삼경(十三經) 혹은 사서오경(四書五經)으로 대표되는 유가 경전은 한대(漢代) 이후로 과거 시험의 교재로 채용되는 등 강력한 권위를 부여받았다. 이러한 현상을 서양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이러한 경전을 어떻게 소개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라 할 수 있다. 20세기 이전 중국의 경전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앙리 코르디에(Henri Cordier, 1905)를 통해 그 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중국 경전의 서양 전파의 상황을 살펴보고, 그 중 대표적인 인물 몇 명을 들고 그들을 통해서 어떠한 경전이 어떠한 방식으로 소개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그들의 상황을 통해 중국 경전이 서쪽에 전해진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풀어보도록 하겠다. 본 논문에서 '초기'라 언급하는 시점은 미켈레 루지에리(Michele Ruggieri,

羅明堅)의 《대학(大學)》의 라틴어 번역이 이루어진 1593년, 즉 16세기 말을 시작으로 제임스 레그(James Legge, 理雅各)의 사서오경이 완료되는 1885년 사이 중 이후 3장에서 언급한 3명이 각각의 번역을 낸 시기, 즉 18세기 이전으로 보고자 한다.<sup>1)</sup>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중국 경전이 번역된 상황을 초기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이러한 번역을 수행한 인물 중 제임스 레그를 제외한 대표적인 인물 3인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이와 같은 중국 경전이 번역된 후 유럽에서의 영향과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5장은 이 논문의 결론이다.

## 2. 중국 경전이 번역된 상황 - 초기를 중심으로

본 논문에서는 제임스 레그(James Legge, 理雅各, 1815-1897)의 사서오경(四書五經) 번역까지의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유가 사상의 최초의 번역은 후안 코보(Juan Cobo, 高母羨, 1546-1592)가 1592년 《명심보감(明心寶鑑)》을 스페인어로 번역하여 1593년에 출간한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명심보감》이 다양한 성현의 말을 기록하고 있지만, 앞에서 언급한 십삼경이나 사서오경 등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또한 이 책은 필리핀에서 출판된 것으로 유럽에서의 소개는 1595년 미겔 드 베나비데스(Miguel de Benavides)에 의해 당시 스페인 국왕인 펠리페 2세(Felipe II de Habsburgo)에 소개되었다. 따라서 아래에 소개하게 될 미켈레 루지에리의 《대학》과 비교하면 번

1) 19세기를 포함하지 않는 이유는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중국학에 대한 수많은 자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사서오경의 완성에 있어 제임스 레그의 작업이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19세기 이전을 초기라 설정하여도 무방하다 필자는 판단한다.

역 자체는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지만 서구권에 소개되는 것 자체는 루지에리의 것보다 늦다.<sup>2)</sup>

본격적인 유가 경전의 번역은 미켈레 루지에리(Michele Ruggieri, 羅明堅, 1543-1607)에 의해 사서(四書) 중 하나인 《대학(大學)》을 라틴어로 번역하여 소개한 것이다. 미켈레 루지에리는 예수회 선교사로,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利瑪竇, 1552-1610)와 함께 《포르투갈어-중국어 사전(Dicionário Português-Chinês(葡漢辭典))》을 만들었다. 이 사전은 최초의 유럽어-중국어 어휘 대조 사전으로, 포르투갈어를 표제어로 한 후 중국어 발음, 한자의 순으로 기록하였다.<sup>3)</sup> 그가 번역한 《대학》은 안토니오 포세비노(Antonio Possevino, 1533-1611)에 의해 1593년 《역사, 과학, 종교 연구 총서 선집(Bibliotheca selecta de ratione studiorum in Historia, In Disciplinis, in salute omnium procuranda, 약칭 Bibliotheca selecta)》에 포함되어 출판되었다.

이들을 시작으로 폴란드인 예수회 선교사인 미하우 보임(Michał Boym, 卜彌格, 1612-1659)은 1667년 중국어-라틴어 사전을, 1670년에 중국어-프랑스어 사전을 출판했다.<sup>4)</sup> 이후 1687년 《맹자(孟子)》를 제외한 사서의 세 책을 번역한 《중국의 철학자 공자(Confucius Sinarum philosophus)》가 파리에서 총 412쪽에 삽화를 더한 2절판으로 출판되었다.<sup>5)</sup> 1711년에는 프랑수아 노엘(François

---

2) 이상은 張西平(2016:163-165) 참조.

3) 이상은 張西平(2009:39) 참조. 그 면모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Ricci-Ruggieri-Portuguese-Chinese-dictionary-page-1.png> 접속일: 2022.10.31. 13:57 확인.

4) 최정섭 등(2018:41) 참조.

5) 최정섭 등(2018:43), 안재원(2020:15) 참조.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그 내용을 다룰 것이다.

Noël, 衛方濟, 1651-1729)에 의해 《맹자》를 포함하고 주희(朱熹)의 서문을 더한 《사서(四書)》를 완역하였다.<sup>6)</sup> 이후에도 산발적인 번역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 1739년 앙투안 고빌(Antoine Gaubil, 宋君榮, 1689-1759)의 《서경(書經): 중국의 성서(Le Chou-king, un des livres sacrés des Chinois)》는 대표적인 예이다. 아울러 조슈아 마시맨(Joshua Marshman, 馬士曼, 1768-1831)이 인도 세람포어(Serampore)에서 1809년 《The Works of Confucius》에 《LUN-GNEE(논어)》라는 제목으로 《논어》의 상십편(上十篇)을 번역하였고, 1814년 《Elements of Chinese Grammar(中國言法)》에 《大學(TA-HYOH)》를 번역하여 원문과 함께 실은 것이 있다.

이러한 노력은 이후 제임스 레그(James Legge, 理雅各, 1815-1897)에 의해 집대성된다. 그는 1861년 《Confucian Analect(論語)》, 《The Great Learning(大學)》, 《The Doctrine of the Mean(中庸)》이 포함된 1권을 시작으로, 같은 해 《The Work of Mencius(孟子)》, 1865년 《Shoo king(書經)》, 1871년 《She king(詩經)》, 1872년 《Ch'un ts'ew with Tso's Appendix(春秋左氏傳)》, 1882년 《The Yi king(易經)》, 1885년 《The Li ki(禮記)》까지 사서오경(四書五經)을 전부 번역하였다.<sup>7)</sup> 이로써 유럽에서 중요한 경전은 거의 소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레그의 번역은 그 생경한 문체가 특징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한자로 적힌 경전의 맛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여 사람들에게 많이 받아들였다.<sup>8)</sup>

6)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언급할 것이다.

7) Henri Cordier(1905:1367-1385) 참조.

8) 허버트 자일스에 따르면 레그의 번역은 중국학 연구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의 시도다. “지금 레그 박사의 위대한 작업을 경시하는 것이 유행인데, 이 관행은 그 번역들이 ‘건조하다 wooden’라고 말한 토머스 웨이드(Thomas Francis Wade) 경의 시절부터 유래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레그의 작업은 중국어 연구에서 행해진 것 중 최대

다음 장에서는 이 중 제임스 레그 이전의 몇 명의 인물을 통해 초기 번역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제임스 레그는 연구가 매우 끈진하게 되어 있지만 그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비교적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필자는 판단해서이다.

### 3. 경전을 번역한 대표적 인물

여기서 뽑은 세 명은 제임스 레그만큼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도 아니고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렇지만 이들을 통해 어떠한 경전의 번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데에 기준으로 삼는 것일 뿐이다. 앞에서 언급한 제임스 레그에게도 왕도(王韜, 1828-1897)라는 협력자가 있어 그에게 도움을 받아 번역할 수 있었다.<sup>9)</sup> 여기서의 기술은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들어 그 주변의 상황과 환경, 각 경전의 영향 등을 논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첫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인토르체타 프로스페로(Intorcetta Prospero, 殷鐸澤, 1625-1696)이다.<sup>10)</sup> 앞에서 그가 《사서》 중 《맹자》를 제외한 세 책을 《중국의 철학자 공자》라는 이름으로 출판했다고 하였다. 이 때 최종적으로 완결한 사람은 필립 쿠플레(Philippe Couplet, 柏應理, 1623-1693)이다. 포르투갈인으로 예수회 신부인 이그나치오 다 코스타(Inácio Da Costa, 1603-1666)는 이 책에서 《대학》과 《논어》의 앞 부분 5장에 대해 초벌 번역을 마치고 인토르체타를 포함한

---

의 기여이며, 토머스 웨이드 경 자신의 하찮은 기여가 쓰레기 더미 속으로 사라져버린 다음에도 기억되고 연구될 것이다.”(Herbert Allen Giles, *Adversaria Sinica*, p. 346, 최정섭 등(2018:262)에서 재인용.)

9) 노재식(2012:150) 참조.

10) 인토르체타의 생평(生平)과 관련하여서는 안재원 역(2020:13-14) 참조.

다른 신부들의 도움을 통해 완성하였다. 이때 함께 참여한 학생으로는 안드레아 페라오(Andrea Ferrão, 1625-1661)가 있어 이그나치오 다 코스타의 지도를 통해 《논어》의 초반부를 번역했다.<sup>11)</sup> 따라서 이러한 면에 근거하면 인토르체타의 온전한 노력을 거친 부분은 《중용》이라 할 수 있다.<sup>12)</sup>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는 예수회라는 선교 단체에서 중국어 경전에 매우 관심이 많고 이를 이해하려고 하였으며, 심지어 이를 번역하려고 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라틴어로의 번역은 라틴어가 가진 위상인 당시 유럽의 공용어이자 식자층의 언어로, 유럽의 지식층에게 중국의 경전을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sup>13)</sup> 당시 예수회는 중국에 진출한 지식인 중 가장 밀접하게 중국에서 활동했던 그룹 중의 대표라 할 수 있다. 그들이 중국어 습득의 목적으로 경전을 보았을 가능성도 있지만,<sup>14)</sup> 중국 경전 강독을 통해 자신들의 교리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선교의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sup>15)</sup>

앞에서 《사서》를 번역함에 《맹자》를 제외한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맹자》는 《사서》의 다른 부분과 달리 전국시대의 맹가(孟軻, BC 327-BC 289)와 관련된 것으로, 아마도 앞에서 제시한 《중국의 철

11) 티에리 메이나드(Thierry Meynard, SJ, 2015:9) 참조.

12) 안재원 역(2020:20) 참조.

13) 비록 인토르체타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글 속의 뉘앙스로는 이보다 더 많은 좋은 것이 있다고 읽히기도 한다. “따라서 내가 이 책을 출판한 것은 유럽 사람들에게 중국의 지혜를 제시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 공자와 맹자의 책을 유럽에 제시하는 것은 마치 몇 잔의 물을 바다에 붓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는 이를 결코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안재원 역(2020:23)에서 인용.

14) Thierry Meynard, SJ(2015:9) “Da Costa went back to Fuzhou福州, in Fujian province, to teach young Jesuits the Four Books.”(이그나치오 다 코스타가 푸젠의 푸저우로 돌아와서 젊은 예수회 선교사에게 《사서》를 가르쳤다.) 이를 통해 중국어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15) 이러한 정황에 대해서는 안재원(2020) 중 해제 부분 참조.

학자 공자》라는 제목에 걸맞지 않아서였을 것이라 판단된다. 《맹자》의 내용이 아무리 공자의 도통(道統)을 직접 이은 것으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공자 자신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에서 나온 것이라 보기에는 무리인 것으로 그들이 판단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후 《맹자》를 포함한 《사서》의 완역은 프랑수아 노엘(François Noël, 衛方濟, 1651-1729)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가 1711년 프라하에서 출판한 라틴어 《중화제국육경(Sinensis Imperii Libri Classici Sex)》에는 《대학(Adulorum Schola)》, 《중용(Immutabile Medium)》, 《논어(Liber Sententiarum)》, 《맹자(Memcius)》, 《효경(孝經, Filialis Observantia)》, 《소학(小學, Parvulorum Schola)》을 포함한다.<sup>16)</sup> 실상 육경(六經)이라는 명칭은 중국에서 사용될 때 대개 《시(詩)》, 《서(書)》, 《예(禮)》, 《악(樂)》, 《역(易)》, 《춘추(春秋)》를 가리킨다. 노엘이 육경(Libri Classici Sex)이라는 제목을 붙일 때 이 사실을 알았을지는 모르겠으나, 사서에 두 권을 더하여 여섯 개의 경전이라는 의미로 붙였을 것이다. 노엘의 번역은 앞서 나왔던 《중국 철학자 공자》의 번역을 참조하지 않고 원문에 의거하여 번역하였다고 본다.<sup>17)</sup> 이러한 정성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밥티스트 뒤알드(Jean-Baptiste Du Halde, 1674-1743)에 의해 그의 《중국과 타타르 제국의 지리, 역사, 연대기, 정치와 과학(Description Géographique,

16) 黃正謙(2013:133) 참조.

17) 장 피에르 아벨 레뮈사(Jean Pierre Abel-Rémusat)의 주장으로 다음과 같다. "... mais le P. Noël n'a pas reproduit leur version: il a travaillé immédiatement sur les originaux." 黃正謙(2013:136)에서 재인용.

18) 중국에 대해 흥미가 많았던 라이프니츠(Gottfried Wilhelm Leibniz, 1646-1716)가 노엘의 책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인토르체타의 번역에 기반했다는 점에 근거한다. 黃正謙(2013:134-5) 참조.

Historique, Chronologique, Politique, et Physique de l'Empire de la Chine et de la Tartarie chinoise)》에서 대부분 수용되었다.

이를 통해 《사서》의 라틴어로의 완역이 18세기 초에 유럽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sup>19)</sup> 그렇다면 《삼경(三經)》을 포함한 경(經)은 언제 번역이 시작된 것일까? Shunqing Cao(2013:39)에 의하면 니콜라 트리코(Nicolas Trigault, 金尼閣, 1577-1628)에 의해 《오경(五經)》이 라틴어로 번역되었다고 하였다.<sup>20)</sup> 그러나 그 실체를 볼 수 없다.<sup>21)</sup> 또한 항저우에서 출판을 하면서 유럽으로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확인이 가능한 경의 번역자로서는 앙투안 고빌(Antoine Gubil, 宋君榮, 1689-1759)을 들 수 있다. 그의 1739년에 출간한 《서경(書經): 중국의 성서(Le Chou-king, un des livres sacrés des Chinois)》은 현재까지 확인 가능한 《서경》의 번역이다. 그 외에도 《역경(易經)》, 《예기(禮記)》 등을 번역하고 주석하였다고 하였으나, 모두 확인되지 않는다.<sup>22)</sup>

---

19) 다양한 책과 문서에서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利瑪竇, 1552-1610)가 1594년에 《사서》를 번역했다고 기술하였다. 필자가 참조한 곳은 Chen Hong(2015:89)이다. 그렇지만 마테오 리치가 지었다고 하는 책의 제목과 그 면모를 확인하지 못하여 본문과 같이 기술하였다.

20) "At the sixth year of Emperor Tianqi of the late Ming Dynasty of China (1626), The Five Classics, translated by Nicolas Trigault, a French missionary, was published in Hangzhou. It was the earliest translated version of the Chinese classical books."

21) 영문 위키피디아에서는 《오경》을 번역했다는 사실을 볼 수 없다. 일본어 위키피디아 니콜라 트리코(ニコラ・トリゴ) 항목에서는 『Pentablibion Sinense』(1626年)は五經のラテン語譯というが、現存しない[4].”라고 하여 현재 볼 수 없다고 알려주고 있다.

<https://ja.wikipedia.org/wiki/%E3%83%8B%E3%82%B3%E3%83%A9%E3%83%BB%E3%83%88%E3%83%AA%E3%82%B4%E3%83%BC>, 접속일: 2022.10.31. 13:57 확인.

22) <https://www.itsfun.com.tw/%E5%AE%8B%E5%90%9B%E6%A6/AE/wiki-0990494-9716274>, 접속일: 2022.10.31. 13:57 확인.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초기 중국 경전의 번역은 예수회 선교사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널리 알려진 마테오 리치나 니콜라 트리코, 미켈레 루지에리 등도 언급되었지만, 그들의 번역에 도움을 준 여러 사람이 있었음 또한 확인하였다. 여기에서 언급한 인토르체타나, 노엘, 고빌 등이 완전히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에 기록한 이유는 현재 번역된 실물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번역물이 끼친 영향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겠다.

#### 4. 중국 경전이 번역되어 전해진 이후 유럽에서의 영향

동양의 학문이나 사상이 서양에 끼친 영향과 관련하여 기술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한 서술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황태연(2011)을 들 수 있다. 그는 “공자의 충격”이라는 표현으로 서구 계몽주의가 동아시아문명에 영향을 받았음을 들고 있다. 르네상스와 계몽주의를 시작으로 합리주의, 자유경제론, 자유시장론 등에 모두 공자를 위시로 하는 중국 문명의 영향을 받았음을 서술하였다. 이 방대한 서술 속에서 시선을 끄는 곳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나폴리 예수회(Societate Jesu) 소속의 알렉산드로 발리냐로(Alessandro Valignano, 范禮安, 1539-1606) 신부와 그의 선교사들이 최초로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 철학의 원전들을 공부하고, 중국인들을 ‘무식한 이교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의도에서 그들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한 것은 새롭고 독특한 정신사적 실험의 시발점이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동서문명의 수준 차이로 인해 중국을 기독교화하기보다 오히려 유럽을 중국화하는

데 기여했다. 예수회 선교사들의 저술을 통해 중국 사상이 17·18세기 서구의 정신들에 미친 영향을 오늘날 빠짐없이 추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다. (중략) 그리하여 30년 전쟁 이래 유럽에서 고대 중국의 성인 공자의 가르침은 대부분의 합리론자에게 일약 도덕·시민 생활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참된 합리적 '자연종교'로 받아들여졌고, 경험론자에게는 든든한 철학적 지원군으로 존중되기 시작했다. 이런 분위기는 공자 철학을 정통 가톨릭 사상과 유사한 것처럼 제시하려고 했던 예수회 선교사들의 기도에 의해 촉진되었다.”

필자 개인적으로도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초기 기독교를 전파하고자 헌신한 예수교 선교사에 의해 경전이 번역되어 유럽에 소개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리의 강화, 중국 문명에 대한 소개 등을 목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애초 현지에 정착한 예수교 선교사가 많은 이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적응하는 것이 필수였을 것이다. 교류를 진행하면서 중국인에게 도덕적으로 높은 이상을 추구하게 해주는, 즉 강한 신념을 알려주는 어떠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것은 중국어 학습 과정 중에서도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다. 잘 알려진 대로 《사서》의 경우는 철학적이론서와 문자 학습서를 겸하기 때문이다. 즉 예수교 선교사들이 후자의 용도로 접근했던 경전이 배우는 과정 속에서 전자로서 느끼게 되는 말 그대로 함양(涵養)이 일어나게 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더군다나 종교를 전파하겠다고 하는 숭고한 정신으로 심신을 무장한 선교사에게는 사서오경과 같은 도덕적인 문장들이 울림을 더 주지 않았을까 한다. 종교적 신심(信心)은 전혀 없는 일반인들도 《논어》나 《중용》 같은 글 속에서 지혜로움과 더 나아가 숭고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하물며 신성(神性)을 추구하는 지식인인 선교사에게는 그 울림이 심상치 않았던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들은 초기부터 《명심보감》 등으로 접근하여, 《사서》를 번역하고 경전을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체계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번역이 소개될 때에는 그 속의 신성함까지 함께 보이면서 유럽에서 다양한 사상적 변화의 단초로 제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교류에 의해 유럽에서는 중국학(Sinology)라고 하는 학문이 일어나게 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변화의 동인으로 작용하였고, 더 나아가 현재 서구의 인류 문화적 헤게모니(Hegemonie)의 바탕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 5. 나가며

지금까지 동서 교류에 있어 중국 경전의 번역과 그의 영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최초 후안 코보의 《명심보감》 번역에서 제임스 레그의 사서오경 번역까지의 번역 상황 중에서 사서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3장에서는 이러한 인물 중 제임스 레그를 제외한 3명으로 인토르체타 프로스페로, 프랑수와 노엘, 앙두안 고빌 등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였다. 4장에서는 이와 같은 중국 경전이 번역된 후 유럽에서의 영향을 황태연(2011)의 기술을 통해 살펴보고 그 원인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제임스 레그 이전 사서와 서경의 번역에 대해 위에 제시한 인물을 중심으로 번역이 진행되었고, 이러한 예수회 선교사에 의한 번역은 선교사의 신심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사실 이와 관련한 기술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연구 결과도 많다. 이 논문은 앞으로 이전까지 이와는 다른 연구를 해왔던 학자의 새로운

분야에 대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자료를 조사하고 고유 명사를 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연구하였음에도 명확하지 않은 것, 사실 관계가 다른 것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예를 들어 앞 부분에 제시한 니콜라 트리고의 《오경》 번역에 대해서 중국 책에서는 모두 사실로 설명하고 있으나, 서양의 문헌 등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한 앙투안 고빌의 책 경우에도 《서경》의 번역은 확인하였으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술이 된 경우도 있고 몇몇 경우는 아예 경전의 번역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도 많았다. 이러한 다양한 기술은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음에도 모두에게 공인되었거나 앞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속에서 연구의 틈이 보이는 것도 관찰할 수 있었다.

앞으로 직접 번역된 원문을 찾아보고 각 구절에 대한 이해나 그들의 번역 양상 등에 대해 차근차근 접근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으로 본 논문을 마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노재식(2012), 〈제임스 레계와 東學西漸〉, 《중국사연구》 80집.
- 데이비드 B. 허니 지음, 최정섭·안재원 옮김(2018), 《위대한 중국학자》, 글항아리.
- 인토르체타 역주, 안재원 편역주(2020), 《인토르체타의 라틴어 중용》, 논형.
- 황태연 지음(2011), 《공자와 세계1, 2, 3》(3권), 창계.
- 張西平(2009), 〈來華耶穌會羅明堅的漢語學習〉, 《或問》 第17號.
- 張西平(2016), 〈儒家思想早期在歐洲的傳播〉, 《中國文化研究》, 2016年秋之卷.
- Chen Hong(2015), 〈On Matteo Ricci's Interpretations of Chinese Culture〉, Coolabah, No.16.
- Henri Cordier(1905), 《BIBLIOTHECA SINICA-DICTIONNAIRE

BIBLIOGRAPHIQUE DES OUVRAGES RELATIFS A L'EMIRE  
CHINOIS», Librairie Orientale & Américaine.

Shunqing Cao(2013), 《The Variation Theory of Comparative Literature》,  
Springer.

Thierry Meynard, SJ(2015), 《The Jesuit Reading of Confucius》, Brill.

위키미디어(<https://commons.wikimedia.org/>) 접속일: 2022. 10. 31. 13:57.

위키피디아(<http://www.wikipedia.org>) 접속일: 2022.10.31.13:57.

華人百科(<https://www.itsfun.com.tw/>) 접속일: 2022.10.31.13:57.

## Translation of Chinese Classics and their Influence on East-West Exchanges

Shin Wonchul\*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present the situation in which the Chinese classics were translated to the west mainly by representative figures, and to explore the beginning of the reason through this. Chapter 2 focuses on the four books among the translation situations from Juan Cobo's 《Mingxinbaojian 明心寶鑑》 which are the first translation of Chinese Classics by European to James Legg's translation of The Four books and The Five Classics. Chapter 3 focuses on three representative figures, Introcetta Prospero, François Noël, and Antoine Gaubil, except for James Legg. Chapter 4 examines the influence in Europe after such Chinese classics were translated through the description of Hwang Taeyeon(2011) and the reason of this. By way of these descriptions, the translation of Chinese classics by Europeans and their influence were overviewed. The various descriptions, contents, and brache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re are many areas that need to be reviewed and pioneered in the future, even though a lot of research has been conducted.

### Key Words

East-West exchanges, The Chinese classics, translation, Introcetta Prospero, François Noël, Antoine Gaubil, James Legg

논문접수일: 2022. 10. 31, 심사완료일: 2022. 12. 26, 게재확정일: 2022. 12. 30

\* HK assistant professor, HK+ project team, Institute for Theology, Anyang University. / E-mail: chimsky@paran.com

